

##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and Friends Perceived by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Ouyang Juan (Kyung Hee University)  
Moon, Ehun-Shik<sup>1)</sup>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oon, Myung-Hw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and friends perceived by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he tests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administered to 376 undergraduate students who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ree universities in Gangwon, Gyeongnam, and Chungnam province in Kore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vi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mily's and friends' social support and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r=.35\sim.56$ ,  $p<.01$ ). Finally, for the relative influential power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he most contributive variable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amily's social support( $\beta=.34$ ), and the next contributive variables were ego-resilience( $\beta=.28$ ) and friends' social support( $\beta=.18$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should be considered and supported as a source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Key Words:**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

---

---

1) Corresponding Author: Moon, Ehun-Shi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Hwangjo-gil, Samcheok-si, Gangwondo, Korea 25949 / E-mail: esmoon@kangwon.ac.kr

##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sup>1)</sup>

구양연 (경희대학교)

문은식<sup>2)</sup> (강원대학교)

문명화 (강원대학교)

---

### < 요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의 3개 대학교 유아교육과 여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전체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의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안녕 전체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34$ ), 자아탄력성( $\beta=.28$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18$ ) 순이고, 그 설명변량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부적 심리적 안녕(부적효능, 부적정서)에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27$ )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인 심리적 안녕(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beta=.41$ ),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26$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24$ )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적 안녕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 예비유아교사

---

1) 본 논문은 구양연(2017)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2) 교신저자: 문은식, (2594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346, 강원대학교 / E-mail: esmoon@kangwon.ac.kr  
논문투고: 2018. 11. 13 / 심사일자: 2018. 11. 21 / 게재확정일자: 2018. 12. 1

## I.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편안한 삶과 심리적 안녕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급속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발달, 격변하는 사회 및 직업 환경, 개인적인 특성들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스트레스는 대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학업 외에 경제활동, 대인관계, 자율성과 책임감, 진로선택 및 취업 문제 등에 직면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의 위협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갑작스러우면서도 커다란 생활변화를 경험한다. 고등학생 시기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주로 하다가 대학진학 후 갑자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이은희, 2004). 대학생 시기의 가치관 확립,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 및 취업에 관한 탐색과 선택, 성인으로서의 생활에 따른 경제적 요구와 경제적 능력의 불균형 등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예비교사 시절의 개인적 경험과 대학에서의 경험은 유능한 예비교사가 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녕이 높은 예비교사들은 이후 교직 생활에서도 심리적 안녕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영신, 2012). 심리적 안녕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과 직업에서의 성취동기와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과 성취동기, 직업 만족도의 관계는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유아교사의 직무와 역할은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직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진과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은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교육은 유아기의 발달적인 특성이나 유아교육과정 및 지도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교육의 성과 역시 교사의 자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임승렬, 1995). 유아교사의 행복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이나 심리적 안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행복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행복이라는 일상적 용어보다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satisfaction with life)’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외적기준이나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Diener, 1984). 학자마다 심리적 안녕에 대한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이 심리적 안녕 경험의 핵심요소라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안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이를 예측하는 데 보다 안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선행연구(김리진, 홍연애, 2013; 민선우, 2004; 박은주, 2009; 유지연, 황혜정, 2014; 정경진, 2007; 정혜옥, 이옥형, 2011)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은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높고, 또한 이들 심리적 특성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도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혜옥, 이옥형, 2011). 믿을 만한 타인으로부터 정보 또는 조언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논리적인 분석, 적절한 정보 찾기,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Wills, 198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업무 만족과 업무생산성 및 심리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교사의 업무만족도를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박은주, 2009).

한편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 관계의 질, 긍정적인 신체상 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심리적 곤경, 대인관계 갈등 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ri, 2002; Utsey et al., 2008). 자아탄력성은 당면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유진, 2012). Klohnen(1996)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적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skilled expressiveness)을 제시하면서, 개인이 각 하위 요인에 대한 기능을 잘 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박유진,

2012에서 재인용). 문태형(2015)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험에서도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맥락에 적합한 교수활동이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Gardner와 Parkinson(2011)은 수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반면 안녕감이 높아 이들 요인들이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예비유아교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면서 유아교사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아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은 미래 유아교사로서 유아들의 심리적 안녕과 유치원 적응을 촉진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로서의 성장은 지속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므로 유아교육현장 진입의 직전단계로서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은 건강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다(박영신, 2012).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 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리적 안녕의 선행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함께 다룬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선행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선행변인들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의 이론적, 경험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의 K 대학교, 경상남도의 I 대학교, 충청남도의 H 대학교 유아교육과 여학생 376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구성은 1학년 95명(25.27%), 2학년 92명(24.47%), 3학년 99명(26.33%), 4학년 90명(23.93%)이다.

### 2. 측정도구

#### 가.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경구(1999)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8문항)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8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의 8개 문항은 가족 및 친구의 정서적 지지(4문항)와 실질적 지지(4문항)를 각각 측정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란 가족이나 친구가 개인에게 존중, 존경, 배려, 안전 등을 느끼게 하는 지지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아플 때 내 대신 일을 해 줄 가족(또는 친구)이 있다’가 있다. 실질적 지지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질과 용역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화났을 때 마음을 풀어주는 가족(또는 친구)이 있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지지의 두 개 하위요인을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계산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 산출은 개별 문항 점수를 전체 합산한 후 해당 하위요인의 문항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 요인별 점수의 범위는 1~5점이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또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 .91, 친구의 사회적 지지 .94, 전체 .93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지현(2009)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수는 14개(예, 나는 주변 사람에게 너 그럽다)이고,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계산되는 5점 평정척도이다.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23세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다. 심리적 안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병기와 홍승표(2004)의 주관적 안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에는 부적효능(8문항), 정적효능(6문항), 정적정서(7문항), 부적정서(4문항), 대인관계(5문항)가 있으며 전체 문항수는 30문항(예: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적응을 잘하는 편이다,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생활에서 슬픈 감정을 느낀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계산되는 5점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이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의 범위가 .76~.85로 나타나 양호한 편이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강원도의 K 대학교, 경상남도의 I 대학교, 충청남도의 H 대학교 유아교육과 1, 2, 3, 4년 여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 척도)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대상 대학교의 전임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 설문지의 내용 및 성격, 자료수집 절차에 대하여 전화와 메일을 통해 사전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의 평균을 알아보면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4.02,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4.13, 사회적 지지의 전체는 4.08로 나타나 예비유아교사의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의 평균을 알아보면, 부적효능은 2.47, 정적효능은 3.62, 정적정서는 3.67, 부적정서는 3.05, 대인관계는 4.08, 전체는 3.59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의 평균이 정적효능과 정적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부적효능이 부적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 전체 점수의 평균은 3.59로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측정 변인	N	범위	Min	Max	M	SD	
사회적 지지	가족	376	4.00	1.00	5.00	4.02	.77
	친구	376	4.00	1.00	5.00	4.13	.70
	전체	376	3.31	1.69	5.00	4.08	.62
자아탄력성	376	2.79	2.21	5.00	3.39	.50	
심리적 안녕	부적효능	376	3.88	1.00	4.88	2.47	.67
	정적효능	376	3.17	1.83	5.00	3.62	.57
	정적정서	376	3.57	1.43	5.00	3.67	.63
	부적정서	376	4.00	1.00	5.00	3.05	.72
	대인관계	376	2.40	2.60	5.00	4.08	.57
	전체	376	2.47	2.23	4.70	3.59	.45

#### 2.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

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20\sim.48,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22\sim.45,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전체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18\sim.54,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도 높은 경향이 있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더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부적효능과 부적정서는 낮고,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심리적 안녕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의 상관분석 결과 (N=376)

구분		심리적 안녕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
사회적 지지	가족	-.34**	.34**	.44**	-.20**	.34**	.48**
	친구	-.22**	.38**	.41**	-.09	.45**	.43**
	전체	-.34**	.42**	.51**	-.18**	.46**	.54**

\*\*  $p<.01$

### 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및 부적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고, 반면 정적효능( $r=.56, p<.01$ ), 정적정서( $r=.47, p<.01$ ), 대인관계( $r=.35, p<.01$ ), 심리적 안녕 전체( $r=.41, p<.01$ )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심리적 안녕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의 부정적 요인인 부적효능 및 부적정서와는 거의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3>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의 상관분석 결과 (N=376)

구분	심리적 안녕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
자아탄력성	-.07	.56**	.47**	-.10	.35**	.41**

\*\*  $p < .01$

#### 4.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예언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승변량(VIF)을 산출한 결과, VIF의 값이 1.14~1.33으로 나타나 예언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IF의 경우 그 값이 1에 접근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만일 그 값이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양병화, 2006).

<표 4>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 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376)

기준변인 예언변인	심리적 안녕								
	부적 안녕			정적 안녕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가족의 사회적 지지	-.22	-.27	-4.99**	.17	.26	6.03**	.20	.34	7.40**
친구의 사회적 지지	-.04	-.05	-.82	.17	.24	5.47**	.12	.18	3.85**
자아탄력성	-.02	-.02	-.33	.41	.41	10.07**	.25	.28	6.29**
R <sup>2</sup>	.09			.46			.36		
Adj. R <sup>2</sup>	.08			.45			.35		
F	12.38**			104.04**			68.80**		

\*\*  $p < .01$

<표 4>에서 보면, 심리적 안녕 전체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 = .34$ ), 자아탄력성( $\beta = .28$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 = .18$ ) 순이고, 그 설명변량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친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부적인 심리적 안녕(부적효능, 부적정서)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27$ )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인 심리적 안녕(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beta=.41$ ),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26$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24$ )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적 안녕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변량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부적 안녕을 감소시키는데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부적 안녕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정적안녕과 가장 밀접한 변인은 자아탄력성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임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22\sim.54$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22\sim.45$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전체는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 유의한 상관( $r=-.18\sim.54$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김나미, 김신섭, 2013; 이옥형, 2012)의 연구, 초임 및 경력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라는 정혜욱과 이옥형(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도 높은 경향이 있고, 그들의 부적효능과 부적정서는 낮으며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심리적 안녕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 $r=.48$ )가 친구의 사회적 지지( $r=.43$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의 부적효능 및 부적정서와는 유의한 상관 없이, 반면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 전체와는 유의한 상관( $r=.35\sim.56$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김나미, 김신섭, 2013; 이옥형, 2012)의 연구, 초임 및 경력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다는 정혜옥과 이옥형(2011)의 연구,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태형(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심리적 안녕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은 타고나는 개념이 아니며 도전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역동적 개념이다(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수립하여, 그들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성과정에서의 자아탄력성 촉진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친구를 사귀며,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셋째, 심리적 안녕 전체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 = .34$ ), 자아탄력성( $\beta = .28$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 = .18$ ) 순이고, 그 설명변량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친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심리적 안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홍콩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들에 비해 긍정정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Kee-Lee Chou, 1999)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우 여전히 가족의 정서적·물질적 지지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에 접어든 예비유아교사들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부적인 심리적 안녕(부적효능, 부적정서)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 = -.27$ )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인 심리적 안녕(정적효능, 정적정서,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beta = .41$ ), 가족의 사회적 지지( $\beta = .26$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 = .24$ )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적 안녕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 중 신뢰감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의 긍정

정서를 높이면서 부정 정서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고영남(2014)의 연구,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김나미와 김신섭(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정적안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아탄력성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임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부적 안녕을 감소시키는데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부적 안녕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여학생, 즉 예비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대학생들과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과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모두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양상이 2개 집단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예비유아교사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표집이 이루어져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문지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평정의 한계가 있다. 이는 응답에 있어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고영남(2014). 남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3), 97-120.
- 김나미, 김신섭(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리진, 홍연애(2013).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55-74.
- 문태형(2015).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탄력성 및 긍정적 착각의 구조적 관계: 4년제 일반대학교와 2, 3년제 전문대학교 비교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325-348.
- 민선우(2004).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병기, 홍승표(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박서연, 정영숙(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 박영신(201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기질적 낙관성,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영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2), 113-138.
- 박유진(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은주(2009).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양병화(2006). **다변양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지연, 황혜정(2014).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성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31-146.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200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7(3), 701-713.
- 임승렬(1995).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개선방안. **교육연구**, 4, 77-97.

- 전경구(1999). 사회적 지원 척도 개발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285-304.
- 정경진(2007).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6-36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ori, G. A. (2002). *Predicting emotional distress from self-control, ego-resiliency, and self-concept clarity in conjunction with life ev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Gardner, D. H., & Parkinson, T. J. (2011). Optimism, self-resilience, and social, or is it support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s among workload, stress and well-being in Veterinary students.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8(1), 60-66.
- Kee-Lee Chou (1999).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Hong Kong Chinese young adul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3, 319-331.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Myers, D. E.,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542-575.
- Utsey, S. O., Hook, J. N., Fisher, N. & Belvet, B. (2008). Cultural orientation, ego resilience,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3), 202-210.
- Wills, T. A. (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Cohen & S. L. Syn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61-82). NY: Academic Press.

